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

- 세 가야금 연주가의 화갑, 정년기념무대

송 혜 진 | 음악평론가 ·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5월과 6월, 정년과 회갑을 맞은 세 가야금 연주가를 위한 기념 무대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가야금 연주가이자 작곡자인 황병기의 이화여대 교수직 정년과 창작활동 40년을 기념하는『우리는 하나 -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과 서울대 이재숙 교수의 회갑기념 공연『매화 향기로 피어나는 열두 노래』그리고 현보(絃普) 최충웅 선생의『정년기념 음악회 - 가야금 인생 40년』공연은 무한한 감동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이 3인의 무대는 우리 국악계의 큰 울림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시대 최고의 국악인 3인의 공연

5월과 6월, 정년과 회갑을 맞은 세 가야금 연주가를 위한 기념 무대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5월 29일, 가야금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황병기의 이화여대 교수직 정년과 창작활동 40년을 기념하는『우리는 하나 -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5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31일 서울대 이재숙 교수의 회갑기념 공연『매화 향기로 피어나는 열두 노래』(국립국악원 예악당), 6월 7일 현보(絃普) 최충웅 선생『정년기념 음악회 - 가야금 인생 40년』(국립국악원 예악당) 등이다.

가야금 연주와 창작 작업을 함께 하면서 20세기 주요 한국 음악사의 이정표가 되었던 황병기(黃秉冀)의 경우,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1회 졸업생으로 모교의 가야금 교수가 되어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고, 현대 가야금 연주와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데 공헌한 이재숙(李在淑)의 경우, 그리고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맥을 이어 국립국악원의 정악연주단에서 40년을 활동한 최충웅(崔忠雄)의 경우.

각기 다르게 진행된 이 기념 무대는 가야금과 함께 해 온 세 연주가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생의 배경이 된 현대 한국 음악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현대의 대중이 공감하는 한국음악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존재

황병기는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6.25 전쟁을 피해 부산에서 체류하던 중에 가야금에 입문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40세 무렵까지 가야금을 겸업(兼業)으로 하는 독특한 삶을 살았다. 황병기는 이미 20대 후반부터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와 창작품을 발표하는 한편, 강사로서 후배들을 지도했지만 1980년에 이화여대 국악과

의 교수로 취임할 때까지 그는 전문적으로 음악만 하는 직업을 갖지는 않았다. 그 무렵 보통 국악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일상'의 틀 밖에서 황병기는 자신의 가야금 음악으로 동시대 세계인들과 호흡하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숲>(1963) 이후 발표하기 시작한 황병기의 창작가야금 곡들은 현대 가야금의 역사가 되었다. 또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했으며, 여러 편의 영화음악, 연극음악, 무용음악 등도 발표했다. 이런 황병기의 가야금과 함께한 삶은 많은 이들에게 음악적 감흥과 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획된 음악회는 이제 황병기라는 음악인이 현대의 대중이 공감하는 한국음악의 특별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숙은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제1회로 졸업했다. 1964년 이재숙은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한 이래, 명인들로부터 구전(口傳)된 여러 유파의 가야금 산조를 기록하면서 산조의 틀을 갖추어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기록을 혼자서 갱신해 온 현대 가야금 연주계의 선두주자였다. 1971년부터 성금연 김윤덕 김병호 김죽파 김춘지 함동정월 등의 음악을 채보한 유파별 악보집을 펴냈으며, 1995년부터는 이 연주들을 가다듬어 매년 한 유파씩 발표하는 유파별 산조를 완주했다. 그리고 대학 재학시절부터 여러 작곡가들이 쓰는 다양한 실험적 가야금 창작곡을 수없이 초연하면서 가야금 창작곡연주사를 기록했다. 이재숙의 제자들이 준비한 이번 회갑 기념 무대 『매화향기로 피어나는 열두 노래』에서는 이러한 이재숙의 가야금과 함께 한 삶을 기리는 12편의 가야금 창작곡이 헌정, 초연 됨으로써 또 한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최충웅은 1936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로 입학하여 가야금을 시작했다. 1961년, 5년 간의 양성소 수업기간을 마치자마자 국립국악원의 연주원으로 출발하여 올해까지 만 40년을 국립국악원에서 보냈다. 그 사이 대학도 졸업하고, 다양한 국내외 무대에서 가야금 정악 외에 다양한 가야금 음악세계를 종횡무진하면서 다른 기회가 전혀 없지도 않았으련만 최충웅은 국악원에 자신의 음악적 삶을 뿌리내렸다. 그 동안 최충웅은 조선시대 마지막 금사(琴師) 함화진(咸和鎭)으로 전승되어 김영윤(金永胤)으로 이어진 국립국악원 가야금 정악의 맥을 국립국악원에서 잇고 있는 '특별하고도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최충웅의 음악적 족적이 최충웅 편저 「가야금 정악」이라는 한 권의 악보로 정리되어 이번 기념음악회에서 헌정되었다.

간략히 짚어본 것이긴 하지만 이 세 연주가의 가야금 삶은 이 기념 공연들을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번거로운 기념행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봉쇄시킨다. 19세기 말 이후 문화 격변기를 거치면서 전통음악의 유산이 보잘 것 없는 쇠락한 왕조의 유물로 인식되던 무렵, 그 음악의 세계를 자유로이 유영하면서 제각기 다른 '의미'를 만든 이들의 아름다운 노년의 감동,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병기를 위한 헌정 음악회 식으로 진행된 『우리는 하나 -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은 이 공연을 통해 새로운 무대 언어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런 이유에서 위의 세 연주자를 위한 기념 음악회 중 『우리는 하나 -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 -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

『우리는 하나 -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5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황병기를 위한 '헌정음악회 *Tribute Concert*'로 기획되어 일찍부터 화제를 모았다. 더욱이 이 무대에 '헌정'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가야금 거문고 대금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클래식 록 재즈 우리의 전통무용과 서양의 현대무용, 서예와 액션 페인팅 비주얼아트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온갖 장르의 음악인들이 다들 모여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일까.

이날 공연의 문을 연 오버쳐(序曲) '황병기 음악세계로의 여행'은 즐거운 충격이었다. 첫 무대에서 가야금 주자 이지영은 김대환의 타악기 연주와 한충완의 키보드 연주, 작곡가이자 극장 조명 전문가인 마사루 소가의 조명 연출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다르게 조율된 가야금을 찾아다니며 황병기 가야금 창작품의 부분부분을 연주했고, 여기에 맞춰 황해도 만신 이해경이 이 즉흥의 소리들을 온몸으로 빨아들여 몸짓을 만들어내는 듯한 춤을 추어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경이로운 감동으로 숨이막힐 지경이었다. 그리고 타악기를 연주하던 김대환은 소리를 멈추고 붓을 들어 <落葉歸根>(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이라는 글씨를 써내려갔다. 이들이 어두컴컴한 대나무 숲 같은 무대에서 황병기 음악을 주제로 한 즉흥적인 소리의 어울림이 빚어내는 이미지는 은밀한 영적(靈的)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우리들에게 '황병기'를 전달했다. 아름다운 서정과 신비로움이 깃든 세계, 파격의 즐거움, 고전적이면서도 초현대적인 소리 이미지를 구현해 낸 것이다.

오버쳐 이후 이 무대에서는 황병기 작곡의 <시계탑>(가야금 박현숙) <소엽산방>(거문고 김남은) <산운>(해금 강은일 · 거문고 허윤정 · 철현금 유경화) <고향의 달>(소리 강권순 · 가야금 이지영) <자시>(대금 홍종진 · 현대무용 방희선) <달하노피곰>(바이올린 이예찬 · 가야금 김일륜) 등이 연주되었고, 황병기 자신이 무대에 출연하여 <미궁>(보이스 홍신자)과 <침향무>를 연주했다.

황병기의 <미궁>은 여전히 놀라웠다. 황병기가 <미궁>을 발표한 이후 25년이 지났어도, 초연 때 함께 무대에 섰던 홍신자의 보이스에서 세월의 연륜이 묻어났어도 이날의 <미궁> 공연은 여전히 청중의 오감(五感)과 정신을 자극했다. <미궁>을 들으며 시간과 매체를 초월한 음악의 영원성에 공감

황병기의 <미궁>은 여전히 놀라웠다. 황병기가 <미궁>을 발표한 이후 25년이 지났어도, 초연 때 함께 무대에 섰던 홍신자의 보이스에서 세월의 연륜이 묻어났어도 이날의 <미궁> 공연은 여전히 청중의 오감(五感)과 정신을 자극했다. <미궁>을 들으며 시간과 매체를 초월한 음악의 영원성에 공감했기 때문은 아닐까…, 필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했기 때문은 아닐까…, 필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1부와 2부의 끝 무대도 이채로웠다. 황병기 작품에 목소리와 전자음, 액션페인팅(박영애)을 곁들인 <듣고 부르고 연주하고 그리기 - 두 명의 배달원과 여화가>(베이스 셈플링 장영규 · 보이스 박현진 · 액션 페인팅 박영애)나 소프라노 노래에 비주얼 메시지를 담아낸 <우리는 하나>(소프라노 윤인숙 · 비주얼 에세이 김국형 · 오르간 한충완 · 장구 김정수 · 훈 홍종진)는 서곡에서 보여준 소리 이미지의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면서 현대 무대예술에서의 '음악'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음악적 충격으로 전달되길

2시간 반, 다소 길게 진행된 황병기 음악으로의 여행은 사실 '무슨무슨 기념 음악회'라면 응당 있을 법한 '세레모니'없이 공연을 통해 청중들에게 '황병기'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연 무대에서 여러 연주자들이 보여준 개별적 역량이나 진행의 완성도 등을 거론하자면 불만스런 점도 없지 않았다. 자칫 황병기의 음악세계를 왜곡시킬 우려를 갖게 한 지나치게 큰 초대형 콘서트 기획, 문화상품으로서의 공연을 강조한 상업성의 노출, 공연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황병기의 음악 생애와 작품세계를 가필(加筆)한 해설 원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해설자, 산만한 진행 등등. '황병기였으므로 가능한 무대'가 어수선한 '난장'처럼 보인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다. 오버쳐나 1, 2부의 피날레처럼 동적(動的)인 무대 사이사이에는 여러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더욱 돋보이게 할 극적인 절제미의 연출도 기대했으나 전체 공연을 관통한 어수선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황병기를 주제로 한 이 공연은 청중들에게 그의 음악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세계인의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는 극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이 공연이 서울에서, 일회적으로 시도된 특별한 음악회가 아니기를 바란다. 더욱이 황병기의 음악정신이 이 공연 기획자들이 말한 '문화상품'으로 접근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조용히 앉아 <숲>을 작곡하고, <미궁>을 생각했던 사고의 '맑은 침잠'이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음악적 충격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품게되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기획보다는 황병기가 연주회를 앞두고 한 신문사 기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 중 "앞으로 가야금 정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을 무대서 연주할 때 '연습곡을 어찌 무대에 올리려 하느냐'며 반대하는 매니저와 싸웠다고 해요. <영산회상>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라고 한 얘기에서 더 큰 기대감이 든다. 황병기 무대에 화두를 던진 김대환의 '낙엽귀근(落葉歸根)'이 영산회상 연주를 통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